

■ 광주 풍암고 2학년 6반 학생들의 '학교폭력 토론회'

# “학교폭력 심각성 어른들은 몰라요”

12일은 광주교육청이 지정한 '학교폭력 추방의 날'. 광주 풍암고 2학년6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앞서 상황극을 연출했다.

“어때요? 잘난 척하는 친구를 때리는 학생, 그리고 폭행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학생들, 꼭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만 폭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방관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죠.”

토론을 진행한 국어 담당 서은주(여·28) 교사가 상황극이 끝난 뒤 설명하자, 학생들이 이어받았다.

문민 양은 “어른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무관심은 가해자를 상습적인 가해자로 만든다”고 학교폭력의 폐해를 경고했다.

서은주 양은 “학생들은 더 이상 순진하지도 착하지도 않다”며 “학교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새싹들이 꽃도 피보지 못한 채 밟혀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조별 토론을 끝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았다. 전유미 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윤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의 교육은 이론에서 그치고 만다”고 강조했다.

습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겨운 양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내가 생각해도 못방귀를 뀌만한 수준”이라며 “봉살활동은 백 시간이든, 천 시간 이든 그저 수업을 안 받고 노는 시

A : (거울을 보며) 난 너무 예쁜 것 같아.  
B와 C : (A를 향해) 재수 없어.  
A : (눈을 치켜뜨며) 뭐라고?  
B와 C : 너 잠깐 화장실로 따라와.  
잠시 후 A를 폭행하는 B와 C의 곁에 4명의 학생이 무심하게 지나간다.

## 무관심·외면이 상습 폭력 불러 “습방망이 처벌 반항심 만 키워”

간에 불과하며 반항심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 글을 쓰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배수인 양은 “초등학교 때 ‘왕따’

라는 것을 당해봤는데 그 친구들과 이내 친해지긴 했지만, 그때의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썼다.

김예린 양은 “말이나 장난으로 받은 상처까지 폭력으로 볼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은 폭력이 난무한다”며 “이 기회를 통해 학교폭력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봤다”는 내용의 글을 제출했다.

풍암고는 3월 한 달 동안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 또는 글짓기를 실시한 뒤, 오는 31일 학생회가 주관하는 조화 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례 발표 및 모범학생 표창 등을 가질 계획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풍암고 2학년6반 학생들이 12일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5층 도서실에서 학교폭력의 폐해·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 광주·전남 학교폭력 1년 새 2배 형사처벌 청소년 작년 1,681명

명(단순폭력 2명·금품갈취 1명·성폭력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천 67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05년의 경우에도 단순 폭력이 159건에 537명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금품 갈취 86건(224명) ▲청소년 성폭력 3건(1명)이었으

며, 17명이 구속됐다. 특징적인 양상은 초·중·고생 사이에 인터넷·휴대전화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 게임 캐릭터를 살 수 있는 '도토리' 등 사이버머니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수 있는 '알' 등 휴대전화 포인트를 빼앗는 신종 수

법 등 등장하고 있다는 점. 이 같은 갈취는 일회성이 아니라 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 폭력은 중·고교보다 초등학교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등 연령층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사이버머니 갈취 등 습사리 노출되지 않는 지능화된 폭력이 많아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



## 송유관 뚫고 휘발유 훔친 '간 큰 가족'

담양·순창 등 전곡을 돌며 국가 송유관을 뚫고 휘발유를 훔쳐 주유소에 판매한 가족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은 12일 송유관을 뚫고 시가 3억2천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김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24일 새벽 1시경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국도변에 매설된 송유관을 드릴로 뚫고 유압호스

를 자신의 차량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휘발유 21만ℓ를 절취하는 등 최근까지 담양과 전북 순창, 충북 청원 등에서 40여차례에 걸쳐 휘발유 27만ℓ(시가 3억2천500만원)를 훔쳐 주유소에 팔아넘긴 혐의다.

이 송유관은 대한송유관 공사 소유로, 여수~경기도 성남까지 연결돼 있다. 구속된 김씨 등은 경찰에서 “범행 뒤 서로 신고를 못하도록 동생과 조카 등 친인척끼리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상습 차량 절도 10대 29명 검거

### 광주 서부경찰

광주 서부경찰은 12일 상습적으로 길가에 세워진 차량들을 턴 김모(17·광주 J고 2년) 등 10대 29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경 광주 서구 금호동 길가에 세워진 안모(28)씨의 승용차 뒷문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차탈이 31회 ▲학생 상대 금품 갈취 36회

▲커피자판기 털이 4회 ▲가게 절도 1회 ▲오토바이 절도 2회 등 모두 7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이들은 12~17세 나이로, 가족을 반복하면서 함께 몰려다니며 PC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김군 등이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인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은행·금감원 직원 사칭

### 1억여원 가로챈 3명 구속

순천경찰은 12일 은행과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 도용당한 신용정보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속여 통장 예금을 가로챈 중국동포 최모(37)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월 15일 순천에 사는 김모(54)씨 집에 ARS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이가 도용당해 이를 해결해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4천여만원의 돈을 9명으로부터 1억7천만원의 가로챈 혐의다.

최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이라며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백화점 신용카드가 연체됐으니 검찰청에 신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검찰청·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보안 설정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현금지급기로 보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나원침 (7075) 김장동



### 양식장 해삼 1,100kg 훔쳐

여수해양경찰은 12일 스푸머 장비를 이용, 여수시 화양면 200여m 앞 다른 사람 양식장에서 해삼 1천100kg(시가 560만원 상당)을 몰래 채취한 홍모(33)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성매매 신고했다 음주운전 '들통'

성매매를 하려 했던 30대가 변심해 알선자를 신고했으나, 정작 자신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인건.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5)씨는 12일 오전 6시경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서 양모(51)씨의 소개로 성매매를 하려다 마음이 돌변, 화대 5만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실랑이 끝에 양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68%인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양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인건.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Upgrade 세기보청기' (Upgrade Century Hearing Aid). The ad features a large red banner with the text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Leader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다채로운 무인재발 개청음 새가늌 첨단보청기' (Colorful automatic hearing aid with advanced technology). Below the banner, there are images of hearing aids and a person wearing one. The ad also includes the text 'Upgrade 세기보청기' and '신비' (Mystery).